

일본 멜론 시장현황

□ 일본 멜론 생산현황

- (재배현황) 생산면적 및 생산량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 2008년 9,210ha이던 수확면적은 2016년 7,028ha까지 떨어졌으며, 생산량 역시 지난 2008년 20만 9,000톤에서 2016년 15만 8,000톤으로 줄어듦
 - 멜론 생산의 노동력 대비 수익성이 낮아 무나 토마토로 전환하는 생산자가 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 확대에 의해 신규 생산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주요산지) 이바라키현(茨城県), 홋카이도(北海道), 쿠마모토현(熊本県)에서의 멜론 수확량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
 - 이바라키현의 수확량은 전체의 약 27.1%를 차지하며, 홋카이도 15.7%, 쿠마모토현 14.2%, 야마가타(山形県) 6.7%, 아오모리(青森県) 6.4%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출하시기) 주요 산지별 출하시기가 상이하나, 주로 5월과 8월 사이 출하가 집중되어 있음
 - 이바라키현의 경우 5월과 6월 사이 출하량이 가장 높으며, 홋카이도는 7월, 쿠마모토현은 5~6월, 야마가타현은 7~8월, 아오모리 현은 8~9월에 비중이 가장 높음
 - 시즈오카현의 경우 유리 온실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연중 출하됨
- (품종정보) 15가지의 주요 품종이 있으며, 품종별로 특성과 산지가 상이함
 - 일본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종으로는 아루스 멜론, 안데스 멜론, 킨시 멜론 등이 있음
 - 아루스 멜론의 경우 4월에서 8월 사이가 재철 시기이지만, 연중 출하되며 주로 시즈오카현, 이바라키현, 쿠마모토현 등 총 21개의 지역에서 재배됨

□ 일본 멜론 유통현황

- (유통형태) 일본의 자국산 멜론은 일본농업협동조합을 거치거나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됨
 - 2016년 기준 일본농업협동조합에서 취급하는 과일 중 멜론은 7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
 - 수입산 멜론은 도매채널을 통해 유통되거나 소매채널로 직유통되고 있음
 - 2016년 일본 주요 도매시장 내 일본산 멜론의 총 도매 물량은 12만 1,689톤으로, 일본산 온실멜론, 안데스멜론, 기타 멜론은 전체 도매수량에서 각각 20%, 12%, 68% 규모를 차지
 - 일본 주요 도매시장 내 수입산 멜론의 총 도매물량은 1만 1,444톤으로 전년대비 96% 수준
- (도매가격) 2016년 일본 주요 도매시장의 kg당 멜론 평균 도매가격은 486엔(한화 약 4,770원)
 - 일본 멜론의 평균 도매가격은 소폭 증가 추세로 전년대비 102% 수준을 기록함
 - 일본 주요 도매시장 내 수입산 멜론의 평균 도매가격은 141엔/kg(한화 약 1,380원)으로 집계
 - 수입산 멜론의 평균 도매가격은 일본산 멜론 대비 1/3 수준 141엔/kg(한화 약 1,380원)으로 낮음
- (포장 및 판매방식)
 - 멜론은 날개, 조각, 디저트 및 다른 음식과 혼합되어 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날개 판매의 경우 수박과 같은 다른 과일과 묶음으로 판매되기도 함
 - 일부 2개의 복수 포장 제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멜론은 1개 날개 형식으로 판매됨
 - 외부 충격 등으로부터 과육을 보호하기 위해 과일망을 씌워 판매하는 형식이 주를 이루며, 붉은 과육 멜론의 경우 이를 알아보기 쉽게 주황색 과일망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음

- **(표준규격)** 일본 멜론의 등급은 색상, 광택, 모양 등을 고려하여 분류됨
 - 1개 포장상자의 최대 무게는 5kg으로 멜론의 중량에 따라 최소 3개부터 최대 8까지 담을 수 있음

〈일본의 주요 멜론 품종〉

등급	선별기준
수(秀)	품종 고유의 색상 광택, 모양을 유지하고 네트(멜론 껍질의 그물 형상)의 발현이 가장 좋고, 병충해 등의 손상이 없는 것
우(優)	수에 이어 품질이 우수한 것
량(良)	우에 이어 품질이 우수한 것

* 출처: 니가타현 농림수산부 식품유통과

- **(주요 판매처)** 청과물 전문 판매점, 중형 및 대형 슈퍼마켓, 백화점 등 다양한 소매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됨
 - 슈퍼마켓, 중대형 마트, 백화점에서는 3종 이상의 멜론을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백화점의 경우 4종 이상의 멜론을 판매함
 - 대형 및 중형 슈퍼마켓에서는 6월 하순과 8월 사이 주로 판매되는 것으로 보임
 -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멜론의 대다수는 일본산 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쿠마모토현, 이바라키현에서 재배된 멜론이 각각 40%에 달하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수입산 멜론의 점유율은 약 3.9%에 불과하며, 현지조사 결과 주로 멕시코 및 과테말라산 멜론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소매가격)** 소매채널별 평균 가격은 백화점이 가장 높고, 품종별로는 아루스 멜론의 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백화점의 멜론 판매 가격은 평균적으로 멜론 1개당 최소 598엔(한화 약 5,9870 원)에서 최대 10,800엔(한화 약 10만 6,040원)의 가격대를 형성
 - 중대형 마트의 경우 평균 1,134엔(한화 약 1만 1,130원)이며,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멜론의 개당 평균가격은 758엔(한화 약 7,440원)
 - 식료품점의 경우 개당 810엔(한화 약 7,950원)의 가격대에 판매되며, 판매되는 품종이 1개 이하로 선택의 폭이 제한적임
 - 품목별로는 아루스 멜론의 판매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주로 고가의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아루스 멜론은 개당 평균 가격은 3,773엔(한화 약 3만 7,050원)
 - 퀴시 멜론의 평균 가격은 1,084엔(한화 약 1만 640원)으로 붉은 과육의 멜론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에 판매됨
 - 안데스 멜론은 개당 979엔(한화 약 9,610원)으로 아루스 멜론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음
 - 뒤이어 홈런 멜론 958엔(한화 약 9,410원), 옐로우킹 멜론 930엔(한화 약 9,130원), 프린스 멜론 757엔(한화 약 7,430원) 등 주로 열매가 작은 비네트계 품종들이 네트계 품종 대비 가격이 낮은 수준
 - 일본의 주요 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일본산 멜론은 수입산에 비해 높은 가격대를 형성
 - 시즈오카현산 멜론은 평균 3,740엔(한화 약 3만 6,42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아루스 멜론이 주를 이룸

- 지바현산 멜론 평균 판매가는 3,240엔(한화 약 3만 1,570원)으로 시즈오카현산의 뒤를 잇고 있으며, 가장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일본산 멜론은 아이치현산 멜론으로 평균 980엔(한화 약 9,540원)에 판매됨
- 멕시코, 과테말라, 한국산 등 수입산 멜론의 경우 일본산에 비해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데, 수입산 멜론의 평균가격은 과테말라산이 852엔(한화 약 8,300원)으로 가장 높으며, 한국산 멜론은 평균 810엔(한화 약 7,890원), 멕시코산 멜론의 평균가격은 495엔(한화 약 4,820원)으로 조사됨

□ 일본 멜론 소비현황

- (소비규모) 일본의 멜론 소비규모는 증감추세를 반복하며 점차 하락하는 추세
 - 2016년 일본의 한 가구당 멜론의 소비금액은 1,030엔(한화 약 1만 80원)으로 2015년 대비 약 12% 증가하였으나, 1인당 연간 소비규모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2016년 기준 이바라키현의 1인당 연간 멜론 소비량은 1.70개로 가장 높았으며 홋카이도와 쿠마모토 현이 각각 1.16개와 1.08개를 기록하며 뒤를 이음
- (소비동향) 일본 소비자들은 주로 멜론을 통째로 구매하여 소비하는 것을 선호
 - 주로 디저트류로 소비되나 다른 과일 및 재료와 어우러져 새로운 형태의 식사류로 소비기도 함
 - 일본에서 판매되는 멜론 중 고급으로 분류되는 품종은 주로 선물용으로 구매되고 있음

□ 수입현황

- (수입동향) 멜론 수입규모는 2016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함
 - 2017년 일본 멜론 수입액은 2,461만 달러(한화 약 266억 125만 원)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약 11% 감소하였으며, 수입량은 2만 5,893톤으로 전년대비 약 9% 하락
- (주요 수입국) 일본의 멜론 주요 수입 국가는 멕시코와 미국이며, 한국산의 비중은 낮은 편
 - 일본 멜론 최대 수입국은 멕시코로 전체의 약 63%를 차지하며, 주로 3월과 5월 사이 수입되는데, 일본산 멜론의 유통량이 가장 높은 시기인 6월과 7월 이전에 주로 수입이 이루어짐
 - 2위 수입국인 미국산 멜론은 8월에서 10월 사이 수입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 외 시기에는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극소수의 멜론이 수입되고 있음
 - 2016년 일본-온두라스 멜론 검역협상이 타결되어 일본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온두라스산 멜론 수입은 1월부터 4월까지 집중되어 있음
 - 한국은 일본의 4번째 수입국으로, 수출규모는 증감추세를 반복하고 있으며 2017년 한국산 멜론 수입은 전년대비 약 12% 감소한 91만 달러(한화 약 9억 8,400만 원)를 기록
 - 일본의 對한국 멜론 수입은 연중 진행되나 주로 6월과 7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관제도)
 - 국제 식물 보호 협약에 규정된 양식에 의거하여 일본 식물방역법 시행 규칙은 지정 해충이 검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며, 수출국 유관기관에서 발행하여 병해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식물 검역 증명서’가 필요

- 식품 위생법에 근거한 후생성 고시 제 370 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에 규정된 농약 잔류 기준에 유의해야함
- 멜론의 경우 멜론 파리 해충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지역에서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멜론은 일본 내 판매 시 ‘농림 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 법)’에 근거한 품질 표시 기준에 따라 일괄 표시를 해야 함
 - 상기 법규에 따라 신선 멜론의 경우 품명, 내용량(포장을 제외한 무게), 원산지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품질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본 농림규격법 19조에 의거하여 농림부가 해당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 멜론 관련 주요 농약 기준치는 하기와 같으며, 규격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의 잔류 기준치는 0.01ppm 이하임

〈일본의 멜론 주요 농약 기준치〉

품목명	기준치 (ppm)	설정 근거	품목명	기준치 (ppm)	설정 근거
아이옥시닐	0.1	Bh2006	쿠로마존	0.02	Bh2006
아쿠리나트린	0.1	Bh2006	이마자킨	0.05	Bh2006
아세타미프리트	0.2	Ab2010	이마자릴	2.0	Ag2006
아트라진	0.02	Bh2006	이미다클로프리트	0.2	Ab2010
아라니카르브	2	Bh2006	이미녹타진	0.2	Ag2006
알드린 및 딜도린	0.05	Bh2006	에티온	0.3	Bh2006
쿠로피돌	0.2	Bh2006	에테혼	0.5	Bh2006

* 출처: 일본식품화학연구재단(www.db.ffcr.or.jp)

- 일본 멜론의 HS코드는 0807.19.000이며, 기본세율은 10%임
 - WTO 협정 세율은 6%로 WTO 관세율에 의거하여 한국, 미국, 온두라스산 멜론의 경우 6%의 관세율이 부과됨
 - 멕시코의 경우 일본과의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정체결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